

韓國企業의 情報産業支出行動 分析

通信政策研究所 研究委員

李 相德

I. 서

현대사회가 고도화 되어가고 다양화되어 감으로써 정보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구조변화 속에서 국민이 정보화에 대하여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으며 기업이 정보부문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흥미로운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우리나라의 상장기업들이 정보부문에 얼마만큼 투자하고 있는가를 1981년, 1983년, 1985년, 3개년을 선택하여 고찰하고 그 추이를 봄으로써 기업측면에서 정보화에 접근해가는 정도를 검정함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II. 분석방법

정보부문에 대한 정의는 정보산업의 산업별 분류를 참고로하여 정의하였다. 정보비를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항목중 통신비, 광고선전비, 도서인쇄비, 교육훈련비를 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이 중 통신비는 전자계로 광고선전비, 도서인쇄비, 교육훈련비는 비전자계로 정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5개의 가설을 설정하여 검정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첫째 가설은 1980년대 이후 기업의 정보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어 정보산업에 대한 지출 구성비가 높아져 가고 있다. 둘째 가설은 통신비로 대표되는 전자계 비용구성비와 비전자계 비용구성비가 모두 증가하고 있다. 셋째 가설은 정보비 증가율이 매출액 그리고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의 증가율 보다 높으며, 전자계 및 비전자계 비용증가율도 매출액 그리고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증가율보다 높다. 넷째 가설은 전자계 비용증가율이 비전자계 비용증가율보다 높다는 것이다.

Ⅲ. 분석결과

첫째로 81년에서 85년 사이의 판매일반비에 대한 전반적인 추세는 9.86%에서 11.39%로 증대했다고 볼 수 있으나 83년 이후에 오히려 감소하는 불안정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산업별로는 어업·광업이 2.96%, 3.12%, 4.05%로 증대하여 이것을 만족시켜 주고 있다. 제조업의 경우는 11.87%에서 14%로 증대하였다가 13.56%로 다시 약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업 및 서어비스업도 6.03%에서 83년 7.19%로 증대하였다가 85년에 6.27%로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다. 업종별로는 어업, 광업, 나무종이제조업, 비금속제조업, 1차금속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이 이 가설을 만족시켜주고 있으며 석유화학제조업, 조립기계장비 및 기타제조업, 금융보험업은 오히려 이 가설에 역행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로 산업전체의 전자계는 약 2.5%로 정체 되어있고 비전자계는 81년에 7.56%, 83년에 9.07%, 85년에 8.77%로 전체적으로 약간 증가했지만 불안정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산업별로 전자계는 어업·광업이 81년에 1.82%, 83년에 2.06% 85년에 2.37%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제조업 그리고 건설업 및 서어비스업의 경우는 83년까지는 증가하고 있으나 85년에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비전자계의 경우는 어업·광업이 약 1% 수준에서 건설업 및 서어비스업이 약 3%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고 제조업의 경우는 9.76%에서 83년에 11.58%로 증대하여 계속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업종별 전자계의 추이로서 둘째 가설을 점검해보면 어업·광업, 나무종이제조업, 석유화학제조업, 조립기계장비 및 기타제조업, 운수창고업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

문에 이 가설을 만족시키고 있고 비전자계에서는 나무종이제조업, 비금속제조업, 1차금속제조업, 도소매업이 이 가설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째로 매출액 증가율과 정보비 지출 증가율의 비교결과는 전체 산업의 경우 매출액 증가율에 대한 정보비증가율의 비가 1.60으로서 매출액 증가율 보다는 정보비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산업전체에 있어서는 세째 가설을 만족시켜주고 있으며 산업별로 보면 어업·광업 부문이 3.66으로 가장 높고 다음이 제조업으로 1.44이며 건설·서비스업이 1.17로 가장 낮아 각 산업별로도 가설을 만족시켜주고 있다. 업종별로는 업종에 따라 차이가 많으나 비금속업이 가장 높은 5.75이며 석유화학업과 금융·보험업종이 각각 0.81, 0.52로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을 만족시키지 못한다.

다음으로 영업활동에 따른 경비로서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증가율과 정보비 지출 증가율을 보면 판매일반비 증가율에 대한 정보비 증가율의 비가 0.94로 경비 증가율이 정보비 증가율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 가설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이나, 이를 산업별, 업종별로 보면 이는 금융·보험업이 너무 낮게 나타난 것에 기인한 것으로서 실제로 각 업종별로는 거의 모두가 약 1 정도이거나 1 이상으로 나타나 경비증가율과 정보비 증가율이 비슷하거나 정보비 증가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여 가설을 만족시켜 주고 있다. 또 정보비 증가율을 전자계와 비전자계의 증가율로 나누어 보더라도 전반적으로는 각각 위의 내용과 비슷한 결론이 나타난다.

네째로 전자계 비용증가율과 비전자계 비용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전체산업으로는 전자계 증가율에 대한 비전자계 증가율의 비가 1.36으로서 비전자계가 전자계 보다는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한 것으로 가설을 만족시켜주고 있으며, 산업별로는 어업·광업과 건설·서비스업은 1보다 높으나, 제조업은 0.94로서 1보다 약간 낮아 가설을 만족시키지 않고 있다. 업종별로는 식음료업, 종합건설업, 금융보험업이 1보다 낮아 전자계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아 가설을 위배하고 있으며, 나무종이, 석유화학, 비금속업, 조립기계업이 약 1로서 두 부문 성장율이 비슷하며, 어업·광업, 섬유·가죽제조업, 1차금속업, 도소매업, 운수창고업이 1 이상으로써 비전자계 성장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가설을 만족시켜 주고 있다.